東亞日報
朝刊
本紙夕刊合十二面

汎米豫備會議
廿二個國代表出席
于先議題起草委員會任命
將來中立의維持確保

[illegible]

米國의親善벗새시 廣田首相謝電

[illegible]

陸、拓兩相파 首相、外地問題協議

[illegible]

獨伊에諸問題로 歐洲政局은多難
國際聯盟機構의兩大支柱인 英佛主張이重大懸隔

[illegible]

伊、에國攻略後 '傀儡國'을建設?
에皇太子와默契說

[illegible]

에政府대市의 陷落을再否定

[illegible]

破局에直面 國際聯盟

[illegible]

土再武裝要請 英正式回答

[illegible]

三國新海軍條約의歷史的調印光景 [런던發同盟] 倫敦海軍會議는 開會以來前後 四個月동안 英米佛三國代表는 드디어 新海軍條約을 協定, 지난 三月二十五日 午後四時부터 센트‧제임스宮안 女王의 室에서 歷史的 調印式을 擧行하엿다 寫眞은 三國新海軍條約의 調印式光景

伊、聯盟의要請으로 媾和交涉原案修正
에國政府가豫備交涉에應하면 即時戰鬪行爲中止

[illegible]

外地首腦部更迭 愼重考慮必要
島田農相의放送

[illegible]

川越氏起用을 各界에서不滿
外相의對中策非難

[illegible]

川越總領事의 起用經緯

[illegible]

鈴木政友總裁 辭任?
結局實現될듯

[illegible]

蘇聯의軍國主義化
特히極東方面에注力

[illegible]

滿洲國外交部 聲明書를發表

[illegible]

西、파쇼派의테로行動 左翼各派는大憤激
同時에勞働組合總罷業指令

[illegible]

伊軍毒瓦斯使用 日本深甚注視

[illegible]

二‧二六事件全貌를 來特別議會에서 寺內陸相說明

[illegible]

外地人事問題로 三相重要協議

[illegible]

夕刊後市況 (17日)

[illegible]

東亞一短評

[illegible]

模範的頭痛藥

ノーシン (노-신)

ノーシン 먹고서 一分、二分、五分……

짜개질듯이아푸든머리가 슬그머니가벼워지고、 끄떡어저절로웃고싶어젓어요! 하늘푸르고、구름히고 정말頭腦도晴明!

—安全第一—

ノーシン에는胃腸等을害하는따위나副作用이없는故로安全합니다。게다가頭痛만이아니라、執務、工夫、映畵、旅行、夜勤等後에、머리가疲勞하야、朦朧하든것을씻은듯이恢復케합니다。

主效
頭痛‧頭腦疲勞
頭重‧心氣沈鬱
宿醉‧頭內朦朧
眩暈‧船車멀미

定價 .30 .50 1.00 2.00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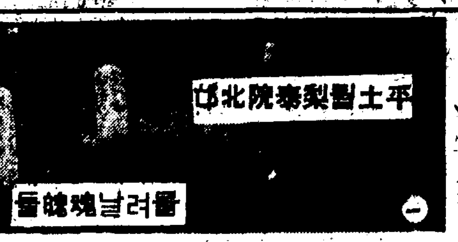
注意
近來類似品이 만히잇읍니다마는 決코ノーシン과똑같이는안됩니다。

發賣元 荒川長太郎合名會社

青塚마저흔들리나 芳魂清魄은어디로?

一杯土된그白骨의才子佳人누구구누?

生前의榮枯가一片浮雲



봉묘지 一대가 주택지로 변한다고 하지안는가.

유명(幽明)이 서로 달리는 마지막의 눈물이 잇슬(…)을 거세(去勢)없는 이마당에 단란한 살림살이가차려지고 새로 태어나는 생명의 우렁찬 울음이 들릴것, 뻗자인가거던 아무리 이것을 사람 계손에서 빛지지는 일이라하기로 여기 하가티 감개가 흘어나지안흘수잇는가.

……○……

여기가 공동묘지로 설정된 이래 대정三년 十一월부터 소화六년三월말까지 여기 파묻힌사람이 어른이 一만五천八백十四명, 어린이 二만六千 五百 五十七명 도합四萬 三千三百 七十一명이니 그동안 五千九百 九十一일동안에 하루평균 약八명씩이다.

□…○…○

말하자면 여기서 영결(永訣)에 이별의 우름이 하루 여덟번이상씩 부근에서 들려왓다.

지금의 저 누구 청총(靑塚)의 어느 한개인들 우연에 싸혀일옷을 입지아니한것이 잇고 어느 한무덤인들 춘하추동(春夏秋冬)가 눈물속에 자라고 시들지아니한것이 잇을것이냐. 어제 이우면을 파헤처기시작하면서 새장을에 가슴을 앓아하는이 얼마나 될것인고.

무덤과 무덤에를 바꾸질하면서 한동오리에 올리서 전후좌우로 옹기종기 얽힌것이 무덤, 무덤뿐을.

어허, 너희가 영웅이 엇, 것을 이제와서 그어떠모양으로 자랑할것인고. 너희 생전의 뜻나비를 뇌새(綿綵)하든 그화용월태를 이제 무엇으로 짐작인들 하리할이냐.

지금에는 아무맛도 없이 술잔이나 건너면서 노래가락 삼아 불러지는 「나앙성 十리허에 높고나진 저무덤에 재자가인은 몇몇이며 영웅열사가 그누구나」를 서투르게 웅얼거리면서 벌써 파내기 시작하여 여기저기 영성한 구멍이가 부러자리 튼것을 일너주는 거기, 그속에 묻힌사람이 제아모리 절대의 가인이엇던들 이제 그속에서 고변것이 무엇이엇슬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아니하냐.

●

피는 시엇서도
고운살은 지낫더니
무근을 헤처보니
해골만이 누엇구려
그래도 어모양보면
제아니라 하리라

□…○…○

한사람을 울린사람, 한집안을 울린사람, 한동네, 더커서 세상을 울린사람도 이제와서는 한개 어설피 쪼아 세인 묘비(墓碑)에 지혀잇슬뿐이랴.

혹은 세상의 비웃슴을 그 묘비와함께 지금까지 지녀온이, 감격한 이야기를 남겨노코파묻힌이, 숨어살엇것만 이리로 오기전날에 세상을 흘흘어 놉흔 사람, 실노 저, 누구청총에 저마다 가지고 드러간 비밀인들 얼마나만흘것인고.

비천(卑賤)에 몸부린자여! 그것이 무덤에와서 누으매 한비탕 춘몽(春夢)이아니냐. 그러매로 부귀(富貴)에 하추라든 귀공자여! 그 또한 한조각 부운(浮雲)이아니냐 사람도 부지러운것이엇고다 밤마다 안화으로 그나 저나 다같은 흙이면서 그래도 정(情)이라니 앞서가는님을 와끼어 여기문으며 통곡하는 그짜이 또한 오늘에 이묘, 저묘에 서로부친 한줌흙덤이에 도라가버렷으니 도대체 사람에게 주검처럼 확실하고 분명함이없으면서도 그주검처럼 의심스럽고 분명치못한것이 업다.

외아들을 이리로앞세운 과부가 얼마나 몸엇으랴 가난과 고독만을 남기고가는 님을 제손으로 묻으며 얼마나 애가장을 써엇스랴……하건만은 이것이 다무엇인가?

세상을 —사람의 상봉을 가장 잘 말하는것은 사람들이 자선를 하면서 세우노흔비석이아니라 여기 무덤마다 제모양 제멋대로 기울고 쓰러저가는 이묘표들이아니냐. 누가 이모양을 변할것인고.

그날을 예정하며
永訣에 뿌린것도
어제런듯 흙이어만
저도마자 흙이로다
남음이 이뿐이라고
봇碑石이 말하더라

□…○…○

뒤에 남산을 지대고 앞으로는 한강을 부감(俯瞰)하는 여기. 당초 경성부의 속알머리가 좁앗지, 도대체 여기에 공동묘지를 설정하다니! 그러고보니 더할나위없는 주택지로 마침중에도 안성마침이다.

복잡한 서울장안을 등뒤로 남산 넘어에 두고 한적하게 한강의 물흐름이나 바보며 솔소리 타고 오는 봄바람과 속삭일 짜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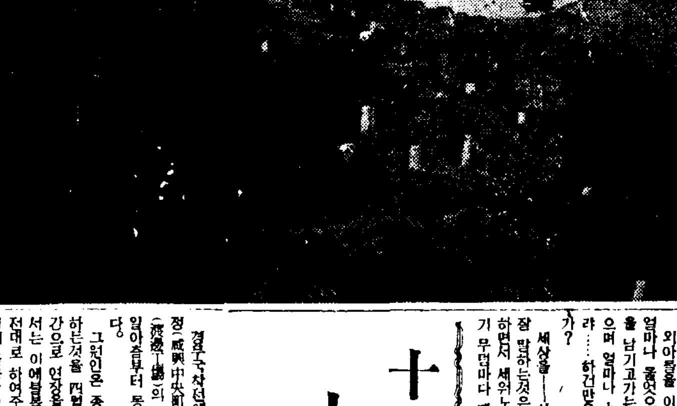
그러므로 지금 늣게나마 경성부가 협이나서 불야불야 무덤을 파헤치기시작한것이다.

찬바람에 ●를 넘어서서 솔숲을 타고갈라 나가며 엎으로 한강의 맑은 물을 끼고 장충단(獎忠壇)쪽으로 뻗어지는길과 지금파서지는 남쪽 파공고 뚫어지는 한강리의 비저진 순환을 밟아주는 이길이 앞으로는 사람하는 사나이와 여인의 한적한 저녁산책의 길로 변할태지! 하기는 그때도 밤차는사나이의 무정을 원망하는 여자의 눈물이 이길에 떨어질른지 모른게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매 어처구니없는 웃음이 저절로 허, 한강 건너 과천(果川)땅의 관악산(冠岳山)이 마주보고 비웃는듯 빙긋거린다.

□…○…□

그는 그러타 하려니와 우선 지금에 파기시작한 이무덤 저무덤을 기웃거려 그속에 묻힌때 그들 몇몇이 가지고들어갓슨 옛이야기를 추려보자. (계속)



◇寫眞 移轉하는梨泰院共同墓

楊司令部隊襲來 全署警官拉去

鴨綠江岸守備隊、現地로出動

楚山對岸輯安에서

十五일 오후二시경 정복 本산(撫山)대안 집안현대상(輯安縣大上)만주국경찰서와 회성자 주재소(…)에 양사령배하의 一파와 비적(匪賊)약 六백명이 출연 습격하야 방화 약탈을 하우에 경찰관을 무장해제시키고 전부 인질로 납치하야갓다. 또 동반 만주는 十七일 아침 (…)에 제三구 파고소(…)에 나타나 외분구 외(…)를 습격하려는 행동을 개시하엿음으로 本산수비대(○○)여명은 현지에 출동하엿다한다.

憲兵隊上等兵이 疑問의拳銃自殺

[신의주] 평북 중강진(中江鎭)헌병분대 상등병 정상산길(井上山吉=假名(二〇)은 十四일 오후六시경 봉난대 뒷산에서 권총 자살하엿는데 원인은 미상하다.

洪城에强盜

돈千圓을强請

[홍성지국전화] 十七일오전四시경에 홍성읍내문밧(洪城邑西門外)유전면(…)씨집에 강도한가침입하야 나타나서 돈천원을 강청하므로 주인은 없다고거절하엿더니 그러면五百원이라도 내라고 하다가 그것마저 거절하매 그는 면비어방어 그주인이 가지고잇던 돈二十六원을 가지고 도망하엿는데 소할홍성경찰서에서는 범인을잡고저 방금활동하고 잇는중이라한다.

木浦近海에 海軍機漂流

十六일 오후七시경 목포(木浦)해협으로 항행중이든 기선 一허이 소속이 불명한 해군기(海軍機) 一기를발견, 목포방면으로 진행중이라는 무전이잇섯다. 상세한것은 알수없으나 이비행기는 十五일 황해해상에서 행방불명된 군함 부상(扶桑)의 탑재기(搭載機)가아닌가 한다고 한다.

敎義洞市場 廢止키로決定

경성부영 돈의동시탄시장(敎義洞市場)은 지난 대정九년 十二월에 설치된이래 처음 수년동안은 자못 성황이 조핫으나 이지음은 그위치가 조치못한 관계인지 배배상황이 불명하므로 경성부에서는 다른 적당한 곳을 선택하야 벌개 시탄시장을 만들기로 하고 동시장은 十五일로써 폐지하엿다 한다.

二圓詐欺犯 【또다시市內出現】

작년三월부터 시내 가처로 도라다니면서 주인의 부탁을 밧어왓다 하고 더도 덜도 업이 二원씩사기 하든 범인은 체포치못한채로 해를 넘이고 잇든바 그범인이 또다시 용산관내에 발현하야 경관들의 가슴을 선뜻하게 하엿다

十六일 정오경 시내 삼각정(三角町)四七의 六六송순애(宋順愛)의 집에는 방숙하세 채린 중년 청년이 나타나서 그 부인 김천대(金千代)(…)에게 자기는 송원씨와 친한친구인데 송원씨의부탁을 받고 찻다하면서 편지한장을 내노핫다 한다.

그편지의 내용으로는 급히 소용이 잇으니 이사람편에二천만주어보내라는 것이엇다한다. 그리하야 의심없이 주어보냇든바 오후六시반경에 자기남편이 도라와서야비로소사기당한 줄알엇다 한다.

禁聽裏에審理

【被告五名、十七日에는結審豫定】

鎭南浦日鑛事件公判

[진남포지국전화] 진남포 일광제련(日鑛製鍊)파업사건의 배후인물 김태성(金泰成)등 四명에 대한 제四회공판은 十七일 정오부터 진남포지청 제一호법정에서 열렷다.

석흑(石黑)재판장주심, 좌등(佐藤)검사입회아래 개정하자 재판장으로부터 심리사실은 종안에 방해된다고 방청을 금지하엿다.

다만 피고의 친척만은 방청을 허락하고 심리를 진행하엿는데 十七일로써 결심(結審)된다고 한다.

洪川에又復大火

菓子店에서出火十二戶를灰燼

原因失火、損害萬餘圓

[홍천] 홍천(洪川)은 화재가 빈번하야 一반은 공황중 또다시 하룻밤에서 불이낫다.

지난 十六일 오전四시에 홍천읍내 희리(希里)八二번지 과자상 강영상(姜永相)의 집에서 발화하야 맹렬한불길은 석잡을새없이 연소하야 五의점 상점등 十一호를 전소시기고 七시경에 이르러서 진화하엿다는데 장소가 소방시내 어니만큼 크게 혼잡을 일우엇으며 원인은 과자점에 화로에서 발화한듯 하다는데 손해는 一만여원에 달하리라한다. 또 지난 十五일 오후一시경 홍천면 삼포리 十六번지 안동희(安東熙)의집에서도 발화하야 一호를전소하고 一시경 진화하엿다는데 원인은 연돌에서부터 나고손해는 二百여원이라 한다.

科學記念放送

파하데이(科學데이)기념행사중의하나로 방송은 다음과갓이 한다고한다.

十七日午後 七時半부터
科學朝鮮의建設 安東赫
十八日午後 七時半부터
發明과科學의實際 朴吉龍
十九日午後 七時半부터
科學데이의意義 李仁

昨年은農事厄年

被害四千萬圓의巨額

最近十年以來의初記錄突破

全南의旱害가首位

한해、풍수해、충해、상해、또해충의 재해가 거듭된 작년중의 전조선농작물의 피해는 피해면적 [illegible]정, 피해액 四千六百二十四萬五千三百九十九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에 달하고 잇다.

그를 피해의 종별로보면

	町步	圓
旱害 面積 金額	[illegible]	[illegible]
風水害 同	[illegible]	[illegible]
病蟲害 同	[illegible]	[illegible]
霜害 同	[illegible]	[illegible]
雹害 同	[illegible]	[illegible]

이다.

그리고 그를 작물별로보면

水稻 面積 金額	[illegible]	[illegible]
雜穀 同	[illegible]	[illegible]
棉 同	[illegible]	[illegible]
豆類 同	[illegible]	[illegible]
陸稻 同	[illegible]	[illegible]

피해의 정도는 전남(全南)이 제一위이고 그다음은 전북이다.

密輸艦監視에 軍隊가動員

이것은最近의中國이야기

軍艦과飛機도出動

[상해十六일발동맹] 중국재정당국에서는 매년五、六천만(元)의 서액에 달하는 밀세밀수선(脫稅密輸船)에 대하야 지금까지의 해관(海關)의 취체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기로하야 이번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야 一대 수사망을 처노키로되엇다 한다.

즉 중앙재정부에서는 순양함(巡洋艦)一척과 비행기二대를 구입하는동시에 전기선(電氣船)二十七척을 지어가지고 각지 해관에 배치할것이다. 특히 복건성에는 대안(對岸)에서부터 밀수입이 만흐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야 사무게사처(事務稽査處)를 신설하고 병력(兵力)一개단을 전속시켜 연해 주요도시의 곳곳에 一중대이상의 병력으로서 그들로 느러노코 공중과 육지, 바다가 서로 홍응하야 탈세자를 엄중감시하기로되엇다 한다.

詛呪할傳染病魔

三月한달에臥病千餘

生命빼긴사람三百

一月以後發病은三千三百餘人

지난三월중에 발생한전염병환자의 총수는 一千四百十인이오 그중에서 사망한 환자가 二百九十一인이라한다.

그리고 一월이래의 총발생환자수로 본다하면 三개월간三千三百六十七인의 다수에달하고 사망자만이 七百三十五인이라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천연두와 발진지부스가 성행하고잇으므로 일반의 주의가 긴요하다한다.

最近엔紅疫과發疹지부스盛行

百餘同胞流離

[신호] 신호시(神戶市)빈암옥(神戶市…)에 거주하든 동포중 지난三월중순부터 四十호 二百여명이 노동시장을 찾어 흑은동으로 흑은서으로 유랑한가슴을 부둥켜안고 떠나다는데 그들은 一년전부터 신호축항매립공사(神戶築港埋立工事)와 판급전차신호고가선(阪急電車神戶高架線)공사를따라 전기장소에「떼라크」로 집을짓고 한집두집 살게된것이 백여호 七百여명으로 신호유일한 동포촌락이 되엇다하며 그후일이 점점 줄어들을따라 일자리를 일케되고 생도는막연하야 한숨으로세운 따라크도 눈물로써 허무러트리고 노동시장을 찾어 산지사방으로 떠나게 된것이라는데 남은동포집은불과 二十여호가량이라고한다.

★그날그날★

(陽)四月十八日(土曜日) (陰)三月二十七(庚午)
日出前 五、五四 月入後 十一、一〇
月出前 三、三〇 月入後 三、二五
滿潮
仁川 前 二、一〇 後 二、三五
鎭南浦 前 六、二五 後 六、五〇
釜山 前 五、五〇 後 六、二五

오늘의天氣
매우조흡니다

朝窒職工罷業

給料에不平

[함흥] 지난 十四일오후 흥남조선질소비료(朝鮮窒素)흥남공장구내에서 작업중이게 되는 주식회사 부선상회(富田商會)해운(海運)관계직공 十八명은 부선상회당국에대하야

一、月給制는 廢止하고 賃金을 支拂할것

이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상회당국자들이 책임잇는 대답을요망한바 잇엇으나 상회당국은 그들의 요구를 一축하야 十五일에는 아침부터 十八명전부가 파업을 단행하엿다한다.

이를 탐지한 흥남경찰은 형세가 험악하야 조질공장에까지 감염되면 큰일이라하야 매우긴장한태도로 그들의 배후를 엄중경계하고잇엇다한다.

그런데 파업을단행한 十八명은 화물을 실고 부리고하는 기술적작업을하고잇엇으므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안켜 일찌기 그들에게 이작업의 기술을 가르처준 천모(某)가 중간에서 알선하야 무조건하고 十六일아침부터는 여전히 작업을 계속하기로 해결을 지엇다고한다.

그런데 이번문제가 이러나게 된것은 전기 부선상회는 개인의 기관이엿으나 四월一일부터 주식회사가 되는동시에 종래의 일급제도를 월급으로하고 작업에대하여는 아무런 수당을 주지안키로 되엇기 때문이엿다고 한다.

十時間의勞働을 十二時間에延長

渡邊工場盟罷

경부국자선에의하면 함흥 중앙정(咸興中央町)에 잇는 도변공장(渡邊工場)의 직공百二명은 十六일아침부터 동맹파업을 단행하엿다.

그원인은 종래에 十시간 노동하든것을 四월十五일부터 十二시간으로 연장한 까닭에 직공측에서는 이에불복하고 공장주에게종전대로 하여주기를 진정하엿으나 이에 불응함으로 천정부(…) 四十一명과 초자부(硝子部)四十명, 주철부(鑄鐵部)의 六十一명중 百二명은 일시에 파업을 단행한것이라한다.

統營港鐵計劃

[통영] 대통영 건설을 목표로 다년간 현안 이엇든 통영 립항철도는 요로당국의 온갓 난관을 거처 도면은 벌서 작정되고 이여서 곧 측량을 시작하려는데 대개래년 二월에는 철도부설 공사에 착수되리라 하야 一반 사회에서는 이 반가운 소식을 고대하고 잇다 한다.

(壹萬劑限一劑式)

代金全額後拂

不老長壽、强精回春

●百補丸은 東西洋補藥中最極上
第一完全 第一조흔 强壯精上効力시기합니다

氣力이 活潑하여지고 早○가完全히낫고 筋骨이 튼튼하여지고 세상이 없어지고 腎氣不足이나 腎水不足이니하는 생각은 夢中에도 아니하게되며 補全身 百補하야 生理的으로 精神的으로 完全히 年이되고 不老長壽케되니 이에서 더조흔 補藥이 어데잇읍니가 當分間 藥先送하고 代金全額後拂條件으로 販賣하오니 이藥의 効力을 疑心할餘地가 秋毫만치도 없○실것입니다 只今곳 注文하시요

人生에急大問題

●나무가 마로려고할때에 肥料와 물을 주지아니하면 그나무가 어떠케됩니가
●사람이 性慾이 줄고 氣力이 없고 勇氣가 나지아니하는때에 조흔 補藥을 아니쓰면 마르려는 나무에 물아니준것가치 悲慘하게 됩니다

百補丸의 藥効는 左와如히 참굉장합니다

一、百補丸을 服用하면 最先手足과 下氣가 [illegible] 가지더워집니다
二、精力이 泉水가치 每日每日 [illegible] 不知中 만하보게되며 [illegible]
三、飮食을 自然히 만히 잡수시게되며 [illegible] 百補之祭由効力偉大之證
四、一週日만連服하면 ○가튼○慾이 不知中○ [illegible]
五、[illegible]
六、精害이增加될 [illegible]
七、[illegible]
八、百補丸은 [illegible]
九、[illegible]
十、血色이 조와지며 [illegible]
十一、힘이생깁니다 [illegible]
十二、사람이活潑하고 [illegible]
十三、長久連服하면 [illegible]
十四、[illegible]
●百補丸은 [illegible]

藥先送 服藥後 代金支拂

神人道師 葛玄眞人의秘方藥

補腎·補陽·補肺·補心·補腦·補脾·補胃·補全身百補·不老回春少年

根本的回春壯陽强精强筋强骨借力平生無病健康長壽劑

百補丸

藥効가廣告와다르면代金을送치마시요

●代金全額後拂販賣를하니 藥効의偉大確實最極上은不問可知

第一、第一、참第一、정말第一조흔 補藥인故로藥先送하고 代金後拂約束으로 販賣하고잇읍니다 그런즉 이藥의効力이얼마나確實한지는諸氏도不問可知일것이올시다

●性慾이減退한사람
●手足과下焦가恒常濕冷한사람
●消化不良한사람
●恒常氣力이없고
●活氣가적은사람은

早老할症狀이요 長壽못할 症狀이오니 一日速히 第一完全하고 第一조흔 補藥 百補丸을 服用하시와 更少年이되시요

代金後拂 規定

[illegible]

後拂注文法

[illegible]

普通注文法

[illegible]

普通注文人께特典

[illegible] 百補丸一劑無料添付

株式會社

平和堂

平和堂藥品部 京城府堅志町(六·八)(前中央日報社跡)

百補丸을注文하시요 [illegible]

社說

迷信打破와 警察當局

一

人類의歷史가 今日까지 어느時代 어떠한社會를 勿論하고 迷信이 없든때는 없었다……

地中海上에는完全制覇 英海軍은半身不隨

無敵을자랑하든英海上權도秋風落葉

怪氣焰萬丈의伊政府

肅軍과國政一新

時事新報의社說

中繼放送

內閣 國民 民政 一掃 脫却 保全

朝鮮辯護士令

改正規則全文【上】

土耳其再生의恩人

케말大記念像

經費千七百萬圓

【이스탄불公園 國民公】

新羅修壞의蹟 (十)

鄭寅普

朝鮮의얼 第二十五

三、海防考略 (七)

內外短信

◇飮酒强制法

◇藝術家優遇

化粧熱擡頭

蘇聯婦人間에

漫畵世界

人間世界의疑問

黑白人種이 이럴수없나

新刊紹介

▲아이생활 四月號 定價十錢 發行所 京城鍾路二丁目九一 아이생활社

▲童話 四月號 定價五錢 發行所 京城

▲監理會報 定價五錢 發行所 京城

▲主日學校申報 定價四錢 發行所 京城鍾路二丁目九一 朝鮮主日學校聯合會

▲朝鮮 四月號 定價三十錢 發行所 朝鮮總督府

お花見弁當の作り方に就て

大阪割烹學校校長 辻德光氏案

春の野山・蒸し玉子

鷄肉の錦燒

菜花鳥賊の露寄せ

材料 (六人分)

調理法

マルキン醬油

丸金醬油株式會社

地方論壇

大成學校를 後援하라

淸州 一記者

淸州邑에 [illegible]하여나려오든 [illegible]으로 [illegible] 淸州社會로서도 大正八年 [illegible] 一大[illegible]에는 [illegible]

게되엇다. 그래서 淸州邑內에서 唯一의 初等敎育機關인 公立普通學校는 入學志願者가 定員에 超過하기 實로 七八倍나되는 [illegible] 現象을 보하게되엇다. [illegible]이 [illegible] 이와같이 大勢에서 무엇보다도 [illegible]하는 [illegible]을 切實히 느낀 [illegible]가 [illegible]하고 [illegible]하야 大正十一年四月에 大成學院을 [illegible]하야 一般有志의 [illegible]한 後援 下에서 [illegible]하니 一[illegible]의 [illegible]를 [illegible]하게되엇다. 그러나 不幸하도 世界大[illegible]로 因하야 [illegible]까지 이러나게되엇다.

그리자 [illegible]에 對한 [illegible]에서는 [illegible] 다시잡고 [illegible]게되엇으니 그는 現校主金元根氏 때문이엇다。私立大成[illegible] 認可를 언어서 [illegible]으로 每年多大한 經費를 支出하야 [illegible] 되엇섯다.

그러나 財界[illegible]은 더욱深刻化하여 [illegible]에는 近四百名이나 되던 [illegible]이 겨우 百名以內에 [illegible] 昭和五年一月分부터는 [illegible] 一文도 [illegible]지안고 [illegible] 支出하여 오는데 同六年度부터는 每年四月에 新入生을 募集하면 [illegible]가 定員에 五六倍나 超過하는 現狀이엇다. 이에 金校主는 同九年度부터 三個年間에 每年一學級씩 增設하야 現今六學年六學級에 年額四千圓씩의 經費를 支出하게 되엇으며 收容兒童數가 近四百名이오 卒業生이 二百五十餘名이나되엇다한다. 校主가 本校를引受經營하여 나온 年數가 벌서 十餘年이나되는데 그間經營費로 近二萬圓을 支出되엇다한다. 歲月은 화살과같이 빨라서 金校主에게 感謝하는 同時에 그學校의發展을爲해서 [illegible] 우리는 [illegible]分의 努力을 하지아니하면 아니되겟다。淸州의 人士여! 銘心할지어다!

輿論無視된新政策

蠶繭共販制를統一 自由販賣制를撤廢

生産者、小製絲業者等犧牲코 大資本擁護의 理由安在

【대구】 잠업의 [illegible]할것이니 작년과같은 해에는 공판의같은 고치와 一등이 二원十六전인데 반하야 자유판매에서는 三원四、五十전의 고가로 매도, 군당 [illegible] 국에서 대제사가 [illegible] 배되엇든것인바 이로인하야 주내 대구에 가까운 각군부에서는 일반생산자들이 다대한 어비를 써가면서 대구의 자유시장에로 몰려나온것이라한다. 이 자유시장에로 팔린 고치는 수단에의한 공동구매(共同購買)제도를 시험삼아 해본다는 조건으로 실시하야 소제사가,중계점으로 생산자에게까지 그리심한한 영향을 못주엇든것인데 당국에서는 또다시 금춘부터 一체의 자유시장을 철폐하겟다는것으로 이에 막대한 타격을받을 생산자 소제사가 중계점들을 위시한 一반사회의 주목은 크다고한다. 배판에 七、八十전의 소실을보는 생산자와 四十여호의 소제사가와 밋그의 종업원의 가족을 한 생활문제와 十여집의 중계점등을 一체 희생하고라도 一부대자본가인 三제사회사를 옹호하지안으면 안될 당국의 의사는 어디잇는지 알수없다고 한다.

사하야각군부를 통하야제정가격으로 판고치를 사드리고잇는데 이공판(共販)제도는 전조선가지어일제히 실시되어잇으나 다만 경성(京城)과 대구(大邱)의 두곳만이 자유판매를 의연히 지속해온바로 여기에 커다란 모순이 생겻잇든 공판의 고치값과 자유시장의 그것과 너무 만흔차이로 공판의같이 [illegible] 이에 도당국에서는 작년 추잠때에 [illegible] 一반업자의 반대를 불구하고 자유판매를 역시 통제의 [illegible] 연튼 대구의 三제사회사는 해마다 제사의 원료부족으로 대공황을 내이고잇는것이라고 한다.

無産夜學苦境 一般同情企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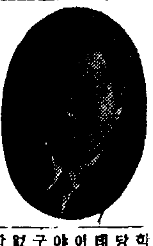
【울산】 배워야산다!는 표어는 우리의 항상 부르지즘이지만 이배울래야 배울수업는 환경에처하야잇는 부산아동을위하야 울산군내만 하야노 수십부산아이이존재헤잇다。그중에도 울산군 대현면(大峴面)에잇는 남화야학(南化夜學)과 용연야학(龍淵夜學)은 설립한지 불과수년에 방금 각기 백여명씩의 주아학생으로 가르치고잇는데 선생으로잇는 정정도(鄭貞道)(二七)양씨와 박세복(朴世福)(二七)양씨는 그간 무보수로 오직 부산아동교육을위하야 꾸준히 노력해왓으나 두아학은 그간 경영에잇어서 사회에서는 하등의 도음을 받음이 없이 오직 몃개인의 보조로 경영해내려왓으므로 더 곤난하엿든데 요새는 그것조차 절망케되야 담장 교사·교舍·문제로 三백여아동이 가두에 방황케 되리라는바 일반부근 유지들은 부산아동의 교육을 위하야 절기동정을 기대할뿐이라고 한다.

이입학난을 완화시키고저 도당국에서는 강습회를 개최하야 취하지못한 一부아동을 수용하고저 방금 준비중하고 잇다한다.

晉州柴園女校長 十五週年勤續表彰

【진주】 지난 十一일 오후三시에 진주시원여학교(晉州柴園女學校)교장 정서륵(丁叙祿)씨의 근속十五주년 기념표창식을 동교당에서 성대히 거행하엿다는데 정교장은 十五주년을 하로같이 성심성의로 시종일관하야 부단한노력을 하야왓으며 더구나 十五년동안 하로도 결석이 없이 출근에 전력을다한 선생에 학부형들의 감은 물론 일반의 칭송도 높다고 한다.

(사진은 정교장)



入學志願三萬四千에 收容은겨우萬五千

갈수록·심각한각처의입학난 慶南道學務課의調査

【부산】 보통학교 입학난 문제는 이제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니지마는 보교一면一교제를 최초로 완성하엿다는 경남에 있어난은 갈수록 심각하여지면서 잇다. 경남도학무과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도내二백五十八보교에 금춘입학지원자수는 三만三천九백十八인으로 입학된아동은 겨우 一만五천六백八十七인에 불과하야 지원자의 五할四분은 취학하지못하고 四十六퍼센트가 입학한 상이라 작년도 입학률 六十三퍼센트에 비하면 十七퍼센트 이상의 입학난이 심각화하엿다.

極貧患者에救濟의손

大師醫院의숨은功勞

재단법인을완성하고시설확장 三年間三萬名을治療

【부산】 주린사람에게 밥을 주는것과 병들어 약을 먹지못하는 불상한 사람에게 약을주는것보다 더한 기쁜일은 없을것이다. 농촌에서 도회로 유리집중된 도회지의 노동자중에도 부산항구의 노동자가 가장 생활정도가 빈곤하야 그수가 六、七만을 초과하고잇으므로 병들어 어두운 집속에서 남몰래 신고하는 가엾은 환자가 얼마나 만흔지 그수조차 알수없는데 그빈곤한 병자들에게 약을주고 친절한 치료를 해주어 그들을 산지옥에서 구출하는 기관이 부산시내에서 남몰래 광대한 범위의 활동을하야 빈곤병자에게 구세주노릇을 하고잇다한다. 부산부 대청정(大廳町)四정목 十九번지 금강사(金剛寺)주지 서정학(徐[illegible])(三○)씨는 조선지 四十년에 불교선전에 종사하야 작정으로 불상한 조선사람에게 광명의 구제손을 뻗치게하고저 소화八년十월 一일부터 연三천원 예산을 가지고 금강사 압에다 커다란 병원을 건축하고 대사의원(大師醫院)이라고 일음하야 부내 이웃정 대신정(大新町)통지의 빈민병자를 시작하야 전의의사 一명과 간호부一명을 두고 무료진단 시약을하야 매일 四、五十명의 빈곤환자가 운집하야 친절한 진찰과 치료를 받어 개원이래 수진한 환자수를 집계하면 소화八년에는 수진환자 五백七인 수진연인원이 七천三백二十二인 一일평균 四十九인이 치료를 받엇고 소화九년에는 수진자 八백四十五인 연인원수 一만五천四백五十四인 一일 평균 五十一인이며 치료를 받엇고 소화十년에는 수진환자 九백十四인 연인원수 一만六천四백四十四인의 다수로 二년반동안에 二천二백六十六인의 연인원 三만九천인이 진료를 받엇다고한다.

동 대사의원은 지난 三월卅一일부로 一만五천원의 기금으로 재단법인을 완성하엿다고하며 앞으로 진찰실을 확장하고 「렌트겐」을 구입하야 빈민의 불치병을 하루밧비 구원하여줄 작정이라고 하는데 이대사의원이야말로 극빈곤환자에게는 구세주격이 되는데 앞으로 만흔 촉망을 가지고 잇다 한다.

(사진은 대사의원과 빈자진찰광경과 원내는 경영자 서정학씨)

第二市區改正 順調로進行

【통영】 통영의 제二시구개정에 대하여서는 통영사 사용지 一대가 통영 지방으로서는 매우 중용한 지대이엇기 때문에 작년 十二월 현재의 상태를 보드래도 관계 토지와 가옥소유자 합 六十八명 중 그의 승인자는 불과 十五명에 지나지 못햇다는것은 기보한바와같이 실로 공사진행상 대곤란한 상태에 잇엇다가 그후 당국의 열성한 노력으로 모든 난경이 모다 해결되어 순조로운 진행을 하고 잇다 한다.

癩病患者日益雲集 行路上에橫行惹鬧

宛然한苦海의룸펜行進隊 不安에戰慄하는馬山府民

【마산】 누보=지난겨울의혹한에도 마산부내의 문둥병환자(반문둥이를합함)는二十여명에 각가웟는데 점점춘풍이 부러오매도시 동경의 밧인지 근근몇주일간에 나병환자가 갑작이몰려와서 지금은 시내가처에서 이들의형상을 보게된다. 이들은 물론一푼한 룸펜에들리없엇으나 이중에는 위생적으로 주호로 관렴이없는 건강한 거지들까지 끼여잇으며 七八세되는어린이까지 섞여잇어 지금은거개가속이 비트러저도 족으로패연치안코 오족八자소관으로반돌리는 뱃장조흔환자가 불경七十여명이라고한다.

이환자들의 생도는 남자는헌양철, 두데기등을 집어다 고물상에다팔며 혹은미고상에게 쌀과보리등속을 어더서 이것을 모아서는 장님에 다른상인보다 싸게판다고한다. 두말할것없이 수입되는 것은잇을망정 소비할것은 없으므로그중에는 상당한 저축으로돈노리하는 풍성풍성한자도잇다고 하는자바 사단잇은 탁주밀조를 하는자도잇다고한다.

이리하야 위생당국의 무성의한 탓인지 점점 그들의 수는 날로 불어가는일방 현재 오동동(午東洞)다리근처에는 「파라크」를 지어노코 각지방의 문둥병자가 몰려들어 마치 문둥촌을 건설한감을 주는바 아침저녁으로 집집에 밥내라고 위협하는것은 비一비재한일이나 공설시장에까지 자유로 출입하야도 갑혹이란자는 태연무관하야 비난이 만타。또 거리음식점에서는 이들에게 음식을파는 봉 실로 위험천만한일이 만키어려우데 종종 룸펜아닌 이런 환자들이 떼를지어 공중목탕、음식점、카페 한거름 더나아가 유곽에까지 진출한다하야 三만부민은 공포중에 빠저 전전긍긍한다고 한다.

鹽藏工事中 四名이窒息

一명직사 三명구조

【군산】 자기의생활을유지하기 위하야 하로八十전에 노력을팔다가 생명까지 끈흘뻔한 노동자가 잇엇으니 그는 지난十六일오전十一시경에 군산부룡빈정(群山府東濱町)에잇는 군산어업조합의 소유인 염장소(鹽藏所)에서 노동하든인부四명은 질식(窒息)되여 큰소동을이르키엇는데 옹급수당으로三명은 다행이 구함을받고 一명은그대로 직사하고 말엇다한다. 전기 소금탕크가 파손되엿음으로 그의수선을 하여오던 날흔 부내해망정(海望町)조병모(趙炳模)(二○)라는 인부가 그의수선차로 그안에들어가자 불의에 끼구러짐을본 다른인부들이 그를 구하려고 뛰어들어가다가 그와같이된것인데 불행이도 四명중전기 조병모만이 죽어버리고 말엇다 한다.

育英事業功勞者 兩氏施惠碑

【장수】 장수군 천천면(長水郡天川面) 춘송리(春松里)이태근(李泰根)씨와 최대흥(崔大興)씨양씨에 는 선천공립보통학교 창설이전에 면내에 교육기관이 없음을 한탄하고 멧해동안 자기의일은 제처노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학교창설운동에 노력한결과 현재의 공립보통학교를 창설케되여 만흔영재를 해마다 양성하게된 그다대한 사회적 공헌을 천추에 전하기위하야 면민총동원으로 양씨의 불망비를 학교근처 대로변에건립하엿는바 지난十三일 제막식을 거행하엿다고한다.

新春野談大會

【개성】 개성 고려청년회 하여 부에서는 오는 四월二十五일 신춘야담대회를 개최하리라는데 일반은 다수히 내청하여주기를 바란다고하며 연제와 연사의 씨명은 다음과같다고 한다.

一、丈夫心境 庚秋 [illegible]氏
一、天下[illegible] 中[illegible] [illegible]氏

陰城强盜逮捕 鎭川署員活動으로

【진천】 지난十四일 오후九시경에 진천서(鎭川署)형사대는 강도一명을 체포하엿다는바 그범인은 체포의전말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범인은 주소불정 충북음성군(陰城郡)맹동면 봉현리 강신규(姜信奎)(二八)로 지난十일 초평면 신통리(草坪面新通里)로 김모(金某)방에서 도박을하고 범인은 강이 돈을일흔후 틈이나자 김모(金某)와 가치 거주지로 향하가는길에 [illegible]에 이르자 삼을하는 김을 자갈로 구타하고 소지금 五十六원을 강탈도주한것이라는바 그범인은 수배의 통보에접한 진천서(鎭川署)에서는 범인수사중 十四일밤에 진천읍내에 잠입한것을 알고 곧 체포한것이라는바 범인은 十五일 음성경찰서로 압송하엿다 한다.

朝鮮人組合長當選에 憤慨한總代들總退場

조선인측은 그대로 의사를진행 群山金組總會大波瀾

【군산】 군산부 강호정(群山府江戶町)에잇는 동부금융조합(東部金融組合)은 일본내지인 二백七十三명과 조선인 三백七十七명 합하야 六백五十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잇는바 최근 동조합내에서는 일본내지인과 조선인과의 대립문제가 야기되어 一부의 공기는 매우 험악하야 일반은 그귀결여하에 주목중이라고 한다.

동조합은 지난 十二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역원개선을 행한결과 종전에는 조합장을 비롯하야 일반역원의 절대다수가 일본내지인이 언어온것이 전부조선인으로되고 일본내지인은 감사와 평의원에 각각 一명씩 뿐이엇다。이에 문제는 임원을 개선할때에 일본내지인측은 선거방법에 잇어 전형위원(詮衡委員)으로 하자는설과 조선인측의 투표로 하자는설이 대립되어 장내는 한동안 소동하엿으나 결국은 이상의 의미에서 투표로써 선거하게되엇는데 조합장에 이만수(李萬秀)씨가 최고점으로 당선되자 일본내지인측에서는 불평만만으로 거의 전부가 퇴장하게되어 문제는 확대된것이라고 한다.

權利回復코저 道에陳情까지

불만을가진 일본내지인측은 그후 자기들의 권리를 회수하려는 방책으로 전북도(全北道)에까지 가서 조합장을 제창외의 감사와 평의원의선거는 일본내지인이 전부 퇴장하엿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만이 투표한것은 불법이니 선거무효라는 이유로 진정하는 一방 군산부윤(群山府尹)에게도 청을 대는등 가진수단이 전개되고잇는데 일방 조선인측에서는 원래 조합이니만치 일본내지인이 그와같이까지 선거한데을 갓게됨은 조합을 위함이 아니라하야 신입 임원들은 간담회를열고 감사에一명 평의원에四명이 사임을하고 차점되엇든 일본내지인으로 충당케하자는 내정강경까지 잇엇다하나 전기와같이 일본내지인측에서는 모든권리전부를 요구하는터이므로 문제는 더욱더 복잡하여진다고한다.

會合

◎東萊郡機張金組總代會 去十三日同組合에서開催
◎東萊金組定時總代會 去十五日東萊邑樓上에서開催
◎慶北蠶業組合定期總會 今十八日午後二時에 同會議室에서開催

消息

◎南昌植氏([illegible]) 任京城[illegible] 就任人事次本報[illegible]支局來訪
◎黃錫普氏([illegible]出張所長) [illegible]支局來訪
◎郭永執氏([illegible]) 二日本報[illegible]支局來訪
◎李明圭氏(金浦金組理事) 就任人事次 本報金浦支局來訪
◎李鳳俊氏([illegible]) 지난十六日에 赴任人事次로 本社[illegible]分局來訪

[illegible]

●[illegible] 所安面 [illegible]里에서 [illegible]患者三名이發生。
●淸州 琅城面山城里 金東六(二○)은 去十六日 淸州明岩堤에서 뱃트를 타다가 잘못하야 溺死。
●求禮 求禮郡艮文面 興大里 李昌永氏는 艮文公普學務委員으로 金貳百圓을 寄附。
●完川郡 [illegible]面에서는 그간郵便所가 없어 不便中 今番李鳳俊氏에게認可가나리어新設
●[illegible] [illegible]里 徐敬亭氏 妻는 去十七日仁川갓다오는길에 急病를맛나 客死。

春光이殺人

新綠芳香의 達城公園에서 美人煩悶끝에急死

첩얻고돌보지안는남편불으며 富豪의돈作亂에犧牲

【대구】 현대의문명은 가진자들은 돈 가질수록 사회를위한사업은 꿈이라도꾸기커녕 오히려 가진수단으로 착취만을 일삼어서 돈의 포화상태(飽和)를 느끼지안는 것과같이그들은 여자를 떠때에 본처를두고도 첩으로, 첩을두고도 또첩을구하야 언제나포화를느끼지 안는것은 돈가지고나서 생기는 변태심이라고할가?그리하야 여기에 인간의 가진비극이연출되는것이다.

十四일오후四시경 대구달성공원내의 송림속에서는 三十세가조그럽어보이는 여자하나이 만흥이 소성되는 명랑한봄도 그는무관이란듯이 한만흔이세상을 떠나버린시체가 발견되어 바야흐로 봄빛을 찾어드든 수만흔상춘객들을 놀라게하엿다한다.

그시체의 주인공은 본적을 경남창녕군영산면교동(昌寧郡靈山面校洞)에두고 현재 부내봉산정(鳳山町)三十七번지에잇는구수란(具秀蘭)(三○)이란여자로서 지금부터五년전에 달성군가창면삼산동(嘉昌面三山洞) 박기수(朴其秀=假名)의 소실로 인연을맺게되어 이래전기 봉산정에서 동거해오던중 남편박기수는 작년여름부터 또표령의여자를 첩으로 마지하여 그와동거한후로는 구수

密林 (134)

金末峯 作 鄭玄雄 畵

봄 十二

인예는 약간피곤함을 느끼면서 집으로 드러오니 어머니는 바쁜일감이드러왓다고 안경을 코허리에 걸처채 가위와 자를들고 말큼 개질을 하시는것이다。

「더 인제오느냐? 시장하겟구나」

「저시간에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은오족 어머니의 사랑뿐이로구나」

생각한 인예는 눈자위가 뜻근 해지는것을 느끼면서

「안요」

하고 고개를 흔들어보이고 방으로드러왓다.

요사이 늦자나 깨나 상만의 일만 생각하고 어머니의 존재를 전연이저것처럼 지나온 자기가몹시도 죄송스러웟다。

인예는

「인내서요 저탈려보겟서요」

「고마워 어서좀 앉어서어어라」

어머님은 연필로 치수가 써여 잇는 종이장을 드려다보시고는연해 자를노코 가위질을하신다.

어머니겻에 우둑허니 앉엇든인예는 무엇을 생각하엿든지 보재기를들고 밖으로 나갓다 근처집 반찬가게에가서 어머님이 조화하시는 탈래를사고 또 어머님께 국을 끄려드리려고 고기를 한근 삿다.

그리고 인예는 과일가가로가서 사과도 이십전어치를샀다。

그는 집으로 드러오자 불이나케 칼을차저 사과를 벗기어 어머님 앞에내 노앗다。

「어머니 좀잡수서요」

「사과는 웨샀니 돈이어데 잇어선」

「호호호 오날월급탓서요」

「응 월급을탓서?」

「네」

인예는 뻣실뻣실말러진 그보드러운 어머님의 광대뼈를 드러다보면서

「어여 잡수서요」

하고 사과깎은것은 어머니 입가까히 가저갓다。

어머니는 입니는 몇개빠젓으나 아래도 사과는 먹기에불편하지안로 가슴을 짓눌린때처럼 맘이찌로왓다。

「예인예야!」

어머니는 문득 가위를 내려노코 인예를 정면으로 바라본다。

「언제하는게냐? 너혼인말이다 그만하면 상만이도 자리가잡힛슬텐데……」

「……」

인예는 방바닥에다 눈을떠러트리엇다。

「예 네가 너의몸 제식하는것보고 죽겟느냐?」

인예는 고개를 번쩍들고

「아이 어머님도 사위스러운말슴만 허시여」

「아니다 너의아버지 무작정하고 연기만하나 그래 이왕은 어미가 어떠케 될지 아느냐 나도슬해 륙십이로구나 …… 그래 언제 한다는거냐」

「글새 몰라요 하지만 그리 돈이란게 어데 한정이 잇는거나 말이다」

「그이는 돈좀모아 버리가지고 한다는거야요」

「아서라 그리지말고 하로라도 일쪽앙집 례식을 일우도록 해라 웅 인예야 어미말을 여사로 히는 분지말어」

토록 어머니는 성한모양이다 인예가 작고쥐아서 내놋는것을 보고

「그만두어 배나먹어라 어여」

인예는 사과를 한쪽베어 물엇스나 목이메어잘넘어가지가 안는다 혀 일인지오날유달리어머니가측은하고 가엽게보이는 것이엇다 불길한 예감이나 생각하도록 인예의가슴은 미어지는것이다

「어머니 부여오래오래 사서요」

인예는 맘속으로 부르지젓다。

「어머니 당신은 이못난딸을위하여」

인예는 생각하엿다.

「지난삼년 동안을 상만의하비를 대이기위하여 어머니는 그만두서도조용 바느질을 오날까지 하시지안엇는가?」

인예는 그이상 더생각하기가 슬헛다 서러움만집는이 하얏케 세인어머님의 머리털을 보거나 여위지고 오그러진 그젓은 가슴을 바라보거나 인예는 크나큰 불행이

「네! 그럼 오랍에는 [illegible] 말을 해보겟습니다」

인예는 도망하는듯이 어러나 [illegible]를 열고 방을 떠낫다

아직저녁하기에는 [illegible] 만 그는 부엌으로 내려가서 쌀을 씻섯다 비로소 인예의 두눈에서 굵다란 눈물이 [illegible]

「어머니 어떠케할고……」

인예는 입속으로 부르지젓다。

「상만씨가 나보다 더 아람답고 돈만흔 자경에게로 가면 그뿐이다。오히려 그를위하여는 그것이 나흘지도 몰른다。그러나 어머님! 당신을……」

인예의 어깨가 가늘게떨렷다。

「늙고 약하고 외로우신 어머님 당신을 어떠케 위로해드릴가요 네? 어머님……」

인예는 금자그대로 광자가 끈허지는듯이 슬펏다。

「訂正」 第十二회 번호가빠젓기 추후게재합니다 밀二

社告

依願解職 丹陽支局長 崔善明

今般右와如히 [illegible]

昭和十一年三月一日附 東亞日報社

社告

依願解職 江西支局長 朴義圭

今般右와如히 弊社江西支局을 [illegible]

昭和十一年三月一日附 東亞日報社

謹告

任善山分局長 申駿遠

昭和十一年四月十五日 東亞日報社 善山支局

任淸津支局長 宋秋甲

昭和十一年四月十七日 東亞日報社 淸津支局

任[illegible] [illegible] 依願解職 [illegible]

昭和十一年四月十六日 東亞日報社 忠州支局

依願解職 [illegible]

昭和十一年四月十四日 東亞日報社 靑丹分局

依願解職 [illegible] 申守岩

昭和十一年四月十二日 東亞日報社 淳昌支局

任記者 文[illegible]

昭和十一年四月十七日 東亞日報社 七坪分局

任記者 [illegible]

昭和十一年四月十日 東亞日報社 圖們支局

任[illegible]分局長 白南龜 依願解職 [illegible]

昭和十一年四月十四日 東亞日報社 烏致院支局

任七坪分局長 李信福

昭和十一年四月十七日 東亞日報社 厚昌支局

任[illegible]河分局長 金成河 依願解職 田[illegible]

昭和十一年四月十四日附 東亞日報社 江界支局

우리옷감 대극성광목

四月十六日부터三日間 大公開 [illegible]
무란루一쥬 [illegible]
ホロリ涙一ト雫 [illegible]
美人懸賞 [illegible]
第一劇場 [illegible]

ダーク、エンゼル
フレドリック・マーチ、マール、オベロン、ハーバート・マーシャル主演
永遠に愛せよ
若草映画協 電本五二五四番

外人部隊
시꼬야
大谷俊夫
團成社

北部版

地方論壇

失學兒童及未就學兒童問題

一記者

高等公立普通學校 新入生 就學狀況을 보건대 募集定員 三百餘名에 志願兒童이 거의 七十餘名이나 남어지 未就學 兒童 二百名은 그 年齡이 經過되어 그만 文盲이 되고말 것이다.

未就學兒童도 그러하거니와 또 有力한 事實이 잇다. 有力家 諸氏, 또 關知하는바 現下 家庭에는 學齡兒童이 多數잇는 것이다.

有志家諸氏여! 有力家諸氏여! 諸氏는 이 現實을 洞察하면 責任이 重大한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方法으로 敎育을 할 것인가?

그러면 諸氏는 緊急問題라 할는지 모르겟으나 充分히 考慮하여보라! 第二는 實用問題라 할는지 모르나 그것은 實로 諸氏의 責任이니 有志家諸氏여! 私利私慾에만 努力을 쓰지말고 社會的 公益的으로 協心하며 一致協力하여 實現되게하기를 바라는바이다.

工産額次位의 農産額

年額五千百萬圓

전년보다 천四백여원이증가

農業咸南의 面貌如此

【함흥】 농업함남의 그 생산하게 나타난 과거도 시대의 변천에 따르는 신흥공업의 발흥으로 인하야 재작년부터 함남산업중 제二위에 떨어젓으나 그래도 기술의 진보향상과 경영방법의 개선발달로 또 해마다 늘어가 작년동에만 그생산액이 실로 五천一백六十二만六천二백六十六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벼생산액이 제一위로 一천九백五十四만六천五백七十六원에 달하고 그다음이 소채류로 一천四十二만四천七백廿二원에 달하고 그다음이 잡곡으로 一천四百四十만九천九백九十七원에 달하고 그다음이 두태 과실등으로 되어잇다.

이것을 재작년의 三천七백五十七만四천五백七十七원에 비하면 一약 一천四백五만一천六백八十九원의 엄청난 증가라고 한다.

運動場敷地寄贈

【태탄】 황해도 해주군 고산면 서타리(…山面石塘里) 박연용(朴…)씨는 …

少婦飮毒自殺

마음없는結婚悲觀

强制結婚이나흔慘劇

【청단】 강제결혼이 나흔 비극一온 소화十년十一월二十四일에 와 해주군 래성면 소호리(海州郡來城面…) 고한 부모의 강제적 행동에 못이겨 김배월(金…月)(二○)이라는 마을 …이 완고한 부모를 원망하든끝에 지난三월二十四일 오후七시경 다량의 양잿물을 마시고 신음하는것을 잡인사람들이 발견하고 즉시해주군 추화면 청단시(…)의 청단의원(…)에서 입원치료중 지난四월十三일 …전지시 반경에 디어 절명하엿다는데 일반부모는 이런비극이 이러나지안토록 결혼문제를 좀더신중이 할것이라 한다.

봄은 뜰의 나물에서 (白川洞外所見)

禮拜中의 敎會에

郡屬이 破窓惹鬧

추격표도는 유도식으로 구타

被害者는 告訴提起

【양덕】 평남양덕읍내(陽德邑內)에서는 지난十二일오후九시경에 양덕읍내 감리교회예배당에서 예배당이 기도하는 시간을 이용하야 모군속은 무조건하고 예배당 창문을 파손식히어 … 시키어 표도중한사람이 추격하야 잡으즉 그는 유도로 추격한 사람을 넘기고 자기가 신어든신으로 구타하야 표도수명이 중상을 입히엇다 한다.

그리하야 동지 유지 서리근(徐利根), 노기언, 윤기원(尹基元) 三씨는 자본금 八만원의 합자회사로 극장을 경영할 계획을 하고 … 고 동지후포리(後浦里)에 장소를 정한후 그 허가신청을 지난해 九월에 당국에 제출하엿다 한다.

소가 잇을뿐이다. 그러나 무슨 까닭인지 당국에서는 이허가신청을 접수한지 七개월이 경과한 이날에도 분명한 어루고만 잇을뿐 유흥장의 조치가 없다는데 이갈이도 허가가 더디어 … 한다. … 일반 시민들은 이것은 사실이나 一, 二개인의 영리적사업은 아니라고 당국의 조처를 … 라고 한다.

改造要望우물

平北에五千

道衛生課檢查結果

【신의주】 평북도 위생과에서는 도민의 위생을 위하야 우물을 검사하엿든바 다음과 같은 참장한 수짜의 우물이 더러운것을 알게 되어 우물의 더러운것을 일반에게 공개하는데 개조요항은 一, 뚜껑을 잘 쌀것 二, 더러운 물이 들어가지 안토록 할것 三, 집웅을 만들것 등이다.

新義州	一〇三	一一三
龍岩浦	六	三六
鐵山	二	二二
宣川	三	三六
定州	一	四四
義州	二	六三
博川	一	六〇四
泰川	一	一七
寧邊	七	八九一
北鎭	三	三四九
計	五五	四五〇六

참관한 여사등가지고 바아흐로 약진도상을 달음질치는 평북의제一도시원산(元山)은 그사이 어떠한 발전과정으로 오늘까지 내려왓는가 이것을 一반에게 자세히 알으켜주는동시에 후세에 영원한 참고가 되게하기위하야 원산부에서 부사(府史)편찬을 계획한다는바 이것을 실현시키기위하야 원산부사료(史料)수집과 편찬에 관한제반준비에 착수하엿다고한다.

元山府史編纂

【원산】 개항(開港)五十六년의

苔灘地方降雹

【태탄】 황해도 태탄지방(苔灘)에는 지난 十三일부터 일기가 돌변하야 기후가 냉냉하든 十四일 아침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반면에 때아닌 우박(雨雹)이 내리 퍼부어 一시는 표토에 … 작물의 피해도 만흐리라하야 一반은 과기후를 매우 우려하고 잇다한다.

奉化地方에

腸疾扶斯猖獗

【봉화】 경북 봉화군 봉화면 가평리(奉化郡奉化面佳坪里)二七八번지 정영식(鄭英植)의 안해 김회숙(金同淑)(三)과 동리二九○이상국(李相國)의안해 (…)은 모다 지난달二十八일에 장질부사에 걸려 신음하는것을 지난十일에 발견하고 봉화경찰서위생계에서는 급거히 달려가서 소독을 하고 교통차단을 하엿다고한다.

한것이라고 하야 동지一반은 심상치 아니한 눈초리로 사건의 장래를 주목한다고 한다.

身病을悲觀코

壯年鐵道自殺

【원산】 지난十五일 오후十시十七분 천내리(川內里)발원산(元山)역간 철도선로 … 지하도 … 상철도 … 부내영정(榮町)二一八 배약상 … 신경쇠약을비관코 … 을던져 자살을하엿다.

築港景氣前提로

地價大暴騰

각재벌이 운집하야 경쟁중

◇多獅島港의現狀

【용천】 평북 용천군 다사도마다 폭등하야 평당 三, 四원에 매매된다는바 전조선대재벌이 모히어 토지매수에 경쟁중인데 금년내로 평당 十원이상으로 매매되리라고 一반은 예측하고 잇다 한다.

(龍川郡 多獅島)는 금년 추기에 축항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또 다사도선도는 벌서 공사에 착수하엿으므로 一반에게 호경기를 준다는바 현재 지가(地價)가 날

年齡超過、不足으로

戶籍僞造하야入學

발각되어 입학생은 전부취소

裏面엔不正事實潛在?

【원산】 입학난! 이 한마디의 말은 현하조선천지에서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의 가슴을 태우고 一반부형들의 비활극을 일으키는동시에 신성해야할 입학이 계도를 발선한 부정행위까지 연출케하는 현상을 빗여내고잇으니 함남안변군 배화면(安邊郡培花面) 내에도 사공이 잇다고한다.

이사실에대하야 조사한바에 의하면 배화공립보통학교(培花公普)에 금년도 신입지원자는 一백四十七명이엇는데 입학생은 만八세가지 八十명으로 지난 三월 중순에 입하통지서를 발부하엿든바 지난二十六일 동교주임선생이 동교교장 백장(白井)씨를 방문하야 금년신입생중 호적위조생이 다수잇음을 진고하야 동교교장은 즉시 동면사무소에가서 입학생의호적을 대조하여본결과 동면용연리(龍淵里) 김창형(金滄衡)씨 손자 김연길(金…吉)(十)외 十一명의 호적위반아동이 잇엇는데 그중에 六명은 연령 초과아동이엇고 또 六명은 만六세는되엇으나 도 불구하고 만八년생 다는 一명으로 호적은만八년생으로 위조한것이 판명되엇다고한다. 이에대하야 동교당국에서는즉시 연령초과아동 六명은 입학취소를 시키고 기타는 그냥 입학을 시키엇는데 一반은 이 사실에 대하야 면당국에 부정행위를 극히비난한다고하며 호적위조

이면에는 부정사실이 잇지안는가 심이주목된다고한다. 이에 대하야 배화면 면장대리 유(柳)서기의 재중이여 면장대리유(柳)서기의 말을 들으면 아래와갈다.

나는 직접관계자는 아니나 그런사실이잇는 모양입니다. 염루명호적위조에 대하야 그것이고의가 아니냐 하는것은 여러분이 짐작에 잇습니다. 운운

白井校長談

우리는 호적초본에 의해서 입학을 시키엇는데 그후 발각되어 전부 입학취소를 시켯소。운운

戶籍僞造兒父兄金某談

호적이 잘못되어 그러케 된것입니다。운운

海岸通公設市場

擴張키로計劃

시탄시장도 수개소신설한다고

元山朝鮮人市街의宿望

【원산】 원산부(元山府)에서 경영하는시장이 부내에 四개소가잇는데 그중 조선인시가지의 중심지인 해안통(海岸通)시장은 수산업의 발전에따라 급격한 활황을 보이는동시에 이용자가 다수증가하야 현재 一천八十八평의 시장은 협착하기 비길데없고 또 협길하기가 발할수없이 동시장의 배이상 확장과 위생시설을 관계자는들은 가방면에서 절규하여오든바 회분한바에 의하면 원산부당국에서는 동시장을 확장하려고 해시장의 섭축지 一천六백十四평을 가하야 一천七백一평의 확장을 하리라는바 이성은 경정(京町)공설시장이 본래 철도용지에 十개년간 사용허가를 언엇는것이 기간도 만료되고 또 성의도 조치못하야 결국 해안통공설시장 확장에 이축하는것 이라하며 종래 一반의 비난의적이든 위생시설도 충분히할 계획하에 목하 차차순비중이라고한다.

그리고 또 신탄시장이 없어 신탄우마차가 시가지에 범람하야 교통에 一대 혼잡을 일우어 이것 또한 一반의 비난이엇든바 부당국에서는 신탄시장도 수개소신설할 계획을 하고 잇다고한다.

개축하려는 계획밑에 우선 그 비거집방법을 세우고저 지난 九일 동면사무소에서 면민대회를 소집하엿는데 이전개축을 주장하는 一파와 아직은 동문제의 보류를 주장하는 一파가 호상대립하야 종일토록 논쟁하엿으나 하등의 결말도 없이 헤어젓다고한다.

事務所改築問題로

兩派가對立

【영흥】 영흥군 복흥면(永興郡福興面)에서는 현재 사무소가 퇴락함으로 면민에 협의하드래 이것을 (…)

傳染病防止策으로

豫防注射施行

【봉화】 지나간 겨울과 금년봄철의 순조롭지못한 괴후로 말미암아 벌서부터 각지에서 장질부사를 비롯하야 전염병이 발생되므로 당지 경찰서위생당국에서는 …

全府民待望의

劇場許可遲延

【진남포】 방편산상에 잇는 진남포항(鎭南浦港)은 인구가 해를따라 증가하야 목하 六만의 시민을 갖고 잇거니와 민중의 오락기관이오 교화기관이 되어잇는 활동사진상설관(活動寫眞常設館)

鎭南浦海上에서

揮發油船發火

휘발유 천상자와 범선 회진

黑煙濛濛으로宛然煙幕

【진남포】 지난 十六일 오후五시경 진남포 억량기리해상(鎭南浦億兩機里海上)에서는 휘발유(揮發油)를 실은 목선에서 발화하야 맹렬히 타오르고 잇어 목언장광(…)방면 一대는 …

완연 연막을 친듯 하엿다 휘발유를 만재하고 동일 입항한 기선 천도환(千島丸)으로 부터 동지 조일조(朝日組)소유 범선 춘일환(春日丸)에 휘발유 약 一천여상자를 옮겨싣고 정기 예인에 잇는 「스탄다—드」 석유회사 창고로 향하야 운송하든도중 범안간 폭발한것이라는데 다행이 인명의 사상은 없엇다하며 발화원인과 손해액은 목하 조사중이라고 한다.

漁民生活保全코저

三萬五千圓債權抛棄

明川金尙任氏의美擧

【어대진】 함북 명천군서면양화동(明川郡西面良化洞) 김상임(金尙任)씨는 지난四월十일을기하야 채권三만五천여원을 포기하고 동촌 양화학교에 二천여원을기부하엿다. 채권대부분이 어민이고 호수로도 백여호에달한다. 금번 채권을 포기한이면을 탐문한바에의하면 씨는 과거에도 一반어민과 몽리를 생각하는마음이 보통사람과달러서 흉절방면으로 후원한것이 一사一거가아니엇다 근년 군수경기로 말미암아 폭풍경기를보이는 함북·동해안이 주요산물인 정어리(鰮)시기를잘우고 一반어민들 다소라도 어기회에 채권을 포기하야생활을 향상시킬작정으로 포기하엿다고한다.

盟罷를斷行

◇임금인상、시간 단축등

咸興渡邊工場盟罷

【함흥】 흥남(興南)부전상회 하고잇다고 하거니와 지난十五일에는 함흥역전(咸興驛前)도변철공장(渡邊…)직공 二十여명파업은 무조건하고 해결을 짓고 十六일아침부터는 완전한 작업을

五個條件提出코

崔承喜女史舞踊

新京서도盛況

【신경】 재북평포 등의 열광적

환호리에 十三일 신경(新京)에도 착한 우리 무용가최승희(崔承喜)여사는 예정과 같이 十四일 오후七시부터 시내풍락극장(豐樂劇場)에서 공연하엿는데 만장의 인기는 동여사의거묘한 무용에 도취되어 정숙을 극하엿고 때로우뢰같이 일어나는 박수소리는 여사로 하여금 재삼출연을 하게하엿다하며 동十시경 대성황으로끝을 마치고 十一시 신경(新京)발 「아시아」로 하르빈(哈爾賓)오로 향하엿다고 한다.

消息

◇陳金乾(永興公普訓導)新任入事次去十一日本報永興支局來訪

◇趙元錫(永興公普訓導)同上

◇朴般里氏(吾興公普訓導)松禾郡事務所長 去十三日本報吾興支局來訪

◇馬鍾恩一氏(…公普校長)淸津第一普校轉任次去十二日本報

支局來訪

信消

新京 治外法權撤廢後 非法院을 硏究키 爲하야 日本人民會에서는 조선인회를 開催。

元山 株式會社를 組織코 一大料理店을 세우려고 計劃中。

大連 朝鮮基督敎長老敎會에서는 今番 敎堂을 新築키 爲하야 起工式을 擧行。

元山 上里洞에는 답이난 안해를 찾어달라거니 안살겟다는 안해를 살게해달라는 두男子가와서 哄騷。

奉化 猩紅熱로 五十七頭斃牛에 가 發見되어 齊牛一頭一齊 豫防注射를 實施。

平壤府內에

痘瘡患者激增

春季種痘를實施

【평양】 봄철에 들어 무창(痘瘡)환자의 발생은 급격이 증가되는현상으로 평양부내의 환자만이 十一명을 돌파하여 부당국에서는 전염을 방지하고저 노력중에 잇다.

아이들에게 종두를 너허가라는 배라를 부당국에서 집집마다 배부할터이라하는바 종두에 응하지 안는자들에겐 벌금을 받을것이라 하는만큼 두창의 전염을 두려워하야 강제적으로 실시에 착수할 것으로 종두인원은 一만二천五백인에 달할것이라 한다.

種痘施行日割

△十七日—(키네마)—黃金町、旭町、櫻町、本町、濱町▲十九日—(南山豐通學校)—壽町、畔町、相町、大和町、泉町、南山町、萬曆町、水玉里△二十日—(敎昌通學校)—陸路里、將九里、巡橋里、景昌里、竹田里、東圍里、陽積里、鳳香里△二十一日—(鍾路普通學校)—新倉里、鍾街里、門里、新倉里、倉田里、上需里△二十三日—(明倫普通學校)—上水口里、下水口里、大寮里、將別里、關門、景昌里△二十四日—(西鄕外鄕村)—新鳳里、南町△二十五日—(青光學院)—西城里一部、△二十七日—(西城普通學校)—西城里一部、箕上里△二十八日—(箕林普通學校)—箕林里一部△三十日—(大同

…

肅川에天然痘

【숙천】 평남 성천군 영천면 노룡리(成川郡…)一대에는 천연두환자가 날로 발생되어 가는데 현하 발견된 환자가 五명 지난 十일 사망자一명 이라한다. 소관 동면주재소(…駐在所)에서는 교통을 차단시키고 소독예방에 주력중이라 한다.

은 것임

一、作業時間의短縮
一、待遇改善
一、賃金引上

등 여러가지 조건으로 공장주의 책임잇는 대답이 잇을때까지 작업을 하지안흘것을 언명하고 十六일부터는 모다 파업에도 들어갓다고 한다.

그러므로 함흥경찰에서는 몹시 긴장하야 동공장부근을 엄중경계하고 잇다하며 그들의 배후를 주목하고 잇다 한다.

림질

根治保證의局所療法

만성고질 근치

慢性痼疾도즉시根治되는

세계적발명요법

世界的發明療法

自宅에서도絕對完全하치료할수잇는醫師의專門淋疾藥

東京西淋病院長 醫學博士 西 謙一郎

◇內服藥으로는絕對로根治가못된다

우리의사(醫師)의립장에서보면 내복약은 一時的안정에지나지 못하나니 림균(淋菌)을죽이는힘이 전연없서 다만 뇨도(尿道)의고름을 잘나오게하는가 어느정도의 진통(鎭痛)수염(收斂)작용이 잇을뿐인것은 특일의 세계적학자 「와레진」 「쉬타인(Stein)」와 그외 각국의전문대가의 림상보고(臨床報告)가 증명하고잇는바이나 사실상으로도 매일유통그외의잇더한내복약일지라도 근치를 식히지못하고 오히려 위장(胃腸)에 고장을일게주거나 신장(腎臟)을 자극식히서 혈뇨(血尿)가 나오게하는 유해작용(有害作用)이잇슴으로써 하식잇고 치료에능난한 전문의사는 내복약을그리사용치안코 바로 신용잇는 절대효과잇는 국소살균법(局所殺菌法)으로 단시일안에 림균을근치식히주어서 환자를 구원한다함으로 이것은 세계에공통된 절대진리(眞理)인것입니다.

◇從來의治療藥으로는反再發된다

림질은 반복이 국소료법(局所療法)으로써 온전(根治)라야만 근치된다고 세계의학계에서 결정된이래 수많은 국소료제가 생겻으나 모도가 연구가충분치못한결과 하나도의사의만족을엇을만한 국소료제의 전적사명(使命)을발휘치못하야서 장구한시일을두고 치료를계속하여도 한결기나 과음 파로를한후에는 또다시 재발케되는것이엿다 즉 뇨도속에는 해면체(海綿體)라는 적은주머니가모히어잇으며 그사이를 뇨도속관(尿道腺管)이라는가는관이 잇스니 림균은 그사이에 바로 침입하여버림으로써 한번 그속에 들어가면 종래의강한 세척약(洗滌藥)으로써 씻거나 안으로타는 내복약을장복하거나 뇨도착약(尿道着藥)또는 살입약(挿入藥)갓흔 주입약 혹은 국소온제 종류일지라도 조직심부(深部)에숨은 림균을죽일수가업스니 어지 또재발되지안흘것입니가 이것이 종래의국소치료약의상태이며 그외 주사(注射)나 광선료법(光線療法)과 전기료법(電氣療法)도치료비가 걸니는대신에 그리대소함은 치료효과를엇지못하게되야 전문의(專門醫)들은 종래의 치료법에는 한혼고심연구를 거듭하든것이엿으나 지금에야 의학계가경탄하는 책임잇는 근치약이 발명되엿슴니다.

◇속속드리뿌리배힌 림균을 곳죽이는 부라온錠의 超威力

탄복할만치 단시일안에 안전고통이런 림질을근치식혀주어서 세계의의학계의리상을 실현한 혁명적치료약 부라온정은 림질치료계의 일대광명입니다 주요성분 부라온(Bruon)은 이것을치료계의 일대광명입니다 효력은 맹렬(殺菌力)으로 뇨도에속속드리 뿌리백힌림균을 모조리죽여버리는 경이할만한발명(發明)이니 전문의사의모도가 림질근치약이라고 증명하는것으로도 알수가잇다.

더구나 한번에 한방울의약으로 단二三分間에 치료효과가 낫타나는약으로써 약기운은 속으로퍼저서 단시일안에 전신의고장을 곳처주며 병화근의뿌리를속히 뿌리빼줌으로써 어더한환자도 심방하지안코 근치할수잇는약이다.

◇十數萬의환자를구원한뜻깊한실례

내복약 또는 다른치료법으로 고질이된 림질로 二十年나 병원(病院)에서 심지어 극단의 그三年된것이면 이삼주 내지 ~ 날뿐만에근치가되며 二三年된것이면 이삼주 내지 일에근치가된다 의사가 절대로신용하는처치약으로 발서十數萬의전쾌실례가잇다. 하로치료가느지면 이를갯게드여 근치되는것이니 그 결정완치료법을하여주기를바랍니다.

발명제조 원용경길원 유곽 元東京吉原遊廓
원장 吉原病院長 佐藤榮先生

독신남녀때는 물론이요
가정생활을 하시는 분은
부부협력하시와 겐고—루로
치료하시사 속히근치식혀버립시다

다된치근 만아여죽 을균림힌백리뿌 에부심도요 은질림
다된치근히속로으임죽곳을 균림진퍼리드속속은錠온라부

지금까지의림질치료약이 근치되지 못하든 것은 한번 요도속에 의사의 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쉽게 씻어낼수 없고 … 하여야 …

부라온錠겐고—루의 효과

오직이 발거지며 근치가 됩니다 … 이런 효과가 낫타나는 약

약한방울로 단二三分間 이런 효과가낫타난다

급성淋疾 만성淋疾 一圓九十錢 三圓 十錢 四十七日分(…) 五瓦入(州五日分)七

자택치료서무대진정

東京市芝區三田通新町 日東製藥合名會社

京城府… 釜山 大廠 商店

KENGOL 겐고—루

K—120

[illegible]

小型論壇

讀者諸位中에는 때로 一家見을 公表하려는 이가 적지안흥터이나 지금까지 本紙에는 아에 讀者와 欄이 없음이 遺憾이든바 이번에 이 小型論壇을 두어 적은紙面이나마 公開하기로 되것은 기쁜일이오 또 자랑스러운일입니다. 누구나 自由로 利用하야 [illegible]

規程

一、長短은 一行十五字 五十行以內로

一、紙上匿名은 無妨하나 眞住와氏名을 반드시 附記할것

一、[illegible] 東亞日報社 編輯局 小型論壇係로

應接室別答

[illegible]

네거리集

[illegible]

ウテナ 花印 コールドクリーム

榮養과 化粧의

——二問題가同時解決——

皮膚도充分히、完全한榮養을줄것갈으면弛緩과、잔주름은防止할수있다

그럴것입니다

——花印クリーム를발러보십시오!

살결곱고、보드럽고 肌膚에彈力이생겨

白粉받는것이

아조재미잇을만치잘오릅니다

脂肪性

거츨음防止에

化粧下로

건것과・여드름의手當에

洗顔用으로도

純良한脂肪性クリーム인故로、살을刺戟하지안코皮膚面에吸收되기쉬우며——따라서疲勞한肌膚에榮養을迅速히豊富히주게되는것입니다。

肌膚의老廢物과汚垢는勿論、아모리濃化粧이라도花印クリーム를발르고까ー제나다오ー루로훔치면簡單히말쑥하게빠저서——

보드럽고、肌膚의弛緩이緊張하야彈力이나고——

그後가그대로、白粉을썩잘받는化粧할바탕이되는것이特長입니다。

볕에건살、여드름、거츨은살의손질에도、어느것보다도손쉽게、게다가完全하다고해도조흘만치肌膚自體를아름답게하는最高級의콜드크림입니다。

花印(五十五錢 一圓十錢)

잘오르고
色味조코
化粧이벗지안는
肌膚에第一조흔
ウテナ粉白粉
——二十五錢——
三十二錢 五十三錢

三色의ウテナ口紅 三〇전
五色의ウテナほゝ紅 三〇전
八色의 ウテナ 粉白粉 二五전・三二전・五三錢
四色의ウテナ固煉白粉 三五전・五三전
八色의 ウテナ 水白粉 三二전・五三전
脂肪性 ウテナ花印クリーム 五五전・一圓一〇전
中性 ウテナ月印クリーム 五三전・七五전
無脂肪 ウテナ雪印クリーム 三二전・六四전
果精 ウテナレモンクリーム 三〇전・六〇전
香氣조흔 ウテナ化粧水 三〇전・三五전・五〇전
純植物性 ウテナポマード 三〇전・五〇전

東京・久保政吉商店

黎明期

（農村篇）

張赫宙 作
鄭玄雄 畫

(95)

압류(押流)(12)

압류는 표면으로는 그때 거진 말소(抹消)되기시작한 [illegible] 의저주에 속속한것이나 내용을 [illegible] 그가 살아서 [illegible] 엿다.

그것이란 게에 [illegible] 나아가, 조희에이엇것이 잇어서(그것을 적자는 여기 [illegible] 하나 조종이사건을기회로 [illegible] 을 조직체로 단결을 한 조흔 기회로 이용하자는것이엇다.

그는 주어번 [illegible] 여러이 잇엇다.

그러나 그의뜻을 다소라도 [illegible] 사람은 인혁이 하나 뿐이엇다.

안해를 [illegible] 그 [illegible]하는것이나, 그것은 이지 [illegible] 에서 지탱해 나갈수 없다는 것이엇다.

「그럼, 당신은 갑비리사나, 황 [illegible] 이 어쨋지사, 혹은 어바사가 되구 싶어 하는것이지요」

「글세요. 그러케 될수야 잇습니까만은, 조금이라도 사람다웁게 살어보구 싶어요」

안해는, 인혁이 보답 [illegible] 제 이야기를 잘 알어주는 퇴우와 이야기하매, 가슴이 [illegible]지는것 갓핫다.

「꼭 여기서 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랍니까?」

퇴우는 실줏 웃으며 비꼿 [illegible] 햇다.

「사람이 아니라기는 [illegible] 어쩨가 잇어요. 그러나 우리 여자들의 생활이란 어디 그 조[illegible]부터 부인 [illegible]

「그말은 나도 [illegible]」

퇴우는 [illegible]을 하고

「그럼 왜 그런 그릇된 생활을 그치지 안코 [illegible]」

[illegible]

다. 퇴우는 회심히 그보다 [illegible] 지식이 우인것을 깨달엇다.

「그것은 도피입니다. 그러구 허여져이지오」

「허영?」

「네ㅡ。 안라씨는 당신네 여자들이 왜 사랑대접을 받지 못하나 그것은 어데서 원인하는것인지, 그원인은 또 어떠케서 원인해 온것인가를 캐고 생각할 필요가 잇잔어요?」

「………」

「허니, 말하자면, 붓잡혀 도피 [illegible]」

「잘알엇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 당면문제는 어떠케 해결을 하면 조와요」

「싸우시오」

「싸와서 이기지 못하면?」

「이길 도리를 하시오。」

「이길 도리가 잇겟서요。 어떠케……」

「아무리 강제로 결혼시키고 싶은들 당자가 없는바에야 어떠케 할 도리가 잇겟소」

퇴우는, 아차! 이거 너머 심하지나 안을가? 하고는 [illegible]

未及한 諸原因

朝鮮文學의 世界的水準觀 ④

金 珖 燮

어제 나는 [illegible] 「朝鮮文學의 世界的水準觀」에 잇어서 [illegible] [illegible]

流星과 隕石

[illegible]

第一만흔 赤綠色盲

色盲이되어지고픈의괴로움

(醫)(파)(色)(盲)

非常한冒險

모든種類의

赤綠色盲의

따러서讀書

擴大鏡으로

色盲이되어

[illegible]

戲曲의 리얼리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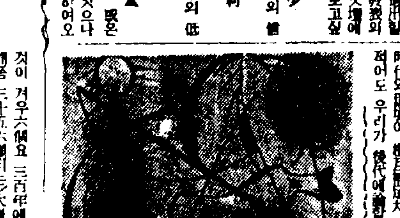
─劇文學建設의길─ (續)

(三) 朴 英 鎬

[illegible]

超現實主義의 繪畫

[illegible]



無名의 悲哀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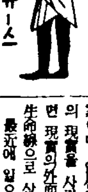
明窓散筆

(三) 李 熙 昇

[illegible]

海外꼬싶뉴ー스

一世紀行方不明의 꼬ー레肖像을發見



[illegible]

漢詩

槃白散人選

春夢 選外

朴 基 汝

春來煩夢每由閑、
如醉如醒未辨間。
窓外鳥啼頻過耳、
枕邊書墮半遮顏。
無難踏去千尋海、
容易飛登萬丈山。
化蝶化周遊別界、
一聲鍾落復塵寰。

話題

婦人의立場에서 歷史를다시써라

[illegible]

産業

旱災退治可能한 乾畓直播法發見

十一年度부터 天水畓에適用 全南當局實行着手

【光州】 旱害를 全南에서 防禦하기 위하야 [illegible]

일년감栽培法

苗床栽培가 効果的

洪 元 吉

◇일년감 (도마도)은 [illegible]

◇施肥 [illegible]

◇多收種法 [illegible]

◇病蟲驅除 [illegible]

京城朝鮮酒 販賣新會社創立

一、十年度事業報告
一、十一年度事業收支豫算
一、定款改正
一、會社設立
그리고 十一年度 事業 [illegible]
一、華僑、羊肉 [illegible] 五、一二一圓

緬羊協會定時總會

一、十年度緬羊協會決算報告 一、一〇〇
一、[illegible] 六〇〇

自給肥増産 第二期計劃着手

第二豫備金支出

【東京電話同盟】 政府는 十七日 閣議에서 左와如히 第二豫備金支出을 決定하엿다
一、國際聯盟事務局費 一五、〇〇〇圓

肉羊出荷 協會서補助

緬羊毛의生産

◇… 年三萬四千瓩

地方産業雜信

▲馬山 [illegible]
▲進永 [illegible]
▲南旨 [illegible]
▲浦項 [illegible]
▲南海 [illegible]

細農民을爲한 叺販賣改善問題

【中】 長城 孫 東 滿

法律顧問

【問】 [illegible]
【答】 [illegible]

鑛業權動靜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面積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二七九六	金銀	[illegible]	五十萬三千坪	三月十六日	[illegible]
一二七七〇	金銀	[illegible]	五十九萬八千坪	同十七日	[illegible]
一二七七一	同	[illegible]	百萬坪	同	[illegible]
一二七七二	金銀	[illegible]	二十萬二千五百坪	同	[illegible]
一二七七三	金銀	[illegible]	二十三萬坪	同	[illegible]
一二七七四	同	[illegible]	八十八萬三千四百坪	同十八日	[illegible]
一二七七五	同	[illegible]	八十九萬二千坪	同	[illegible]
一二七七六	金銀	[illegible]	九十八萬坪	同	[illegible]
一二七七七	金銀	[illegible]	八十六萬九千坪	同	[illegible]
一二七七八	金銀	[illegible]	九十七萬八千坪	同	[illegible]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一五八四	[illegible]	三月十七日	[illegible]
七二二〇	[illegible]	同	[illegible]

鑛業權變更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九〇三八	[illegible]	三月十七日	[illegible]

共同鑛業權者脫退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〇三一三	[illegible]	三月十六日	[illegible]
一一五〇一	[illegible]	同十七日	[illegible]
一二三八四	[illegible]	同十八日	[illegible]

共同鑛業代表者改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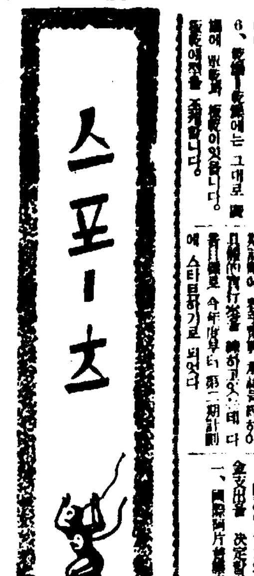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二二八四	[illegible]	三月十八日	代表者[illegible]

朝鮮農會와副業

朝鮮竹製品

乾皮革類그릇勸

스포ー츠



萬米에力走

우리는體力에젓다

앞날의 入賞爲해 邁進!

平壤蹴球團天津에

四月二十日午後出發

第二陣은京城의都市對抗에

伯林올림픽案內

第十一回大會프로에서

◇…旅行割引 [illegible]

◇…入場料 [illegible]

◇入場券前賣價格 [illegible]

◇올림피아파스 [illegible]

◇普通入場券 [illegible]

Kartenstelle für die Olympiade Berlin 1936. Berlin-Charlottenburg 2 Hardenbergstra Be 43.

올림픽陸上 練習記錄會

數多한種目에 活躍한韓氏

籠球選手權 京城豫選

日本스키一行着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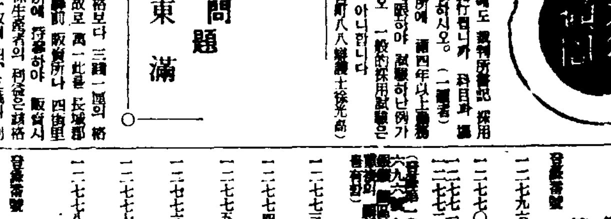
運動界動靜

今日의運動

朝鮮劇場

【電光一二八一番】

우리옷감 대극성광목



六一〇ハップ의特徵

△皮下深部까지 잘浸透하야 痼疾인이런皮膚病菌을顯著하게殺滅식히는 作用을가지고
△體內에잇는 毒素를體外로 排出식힘으로病源을根本的으로驅逐하며
△身體에自然的으로 感興된疾病을 自癒하는機能을活潑케促進식힘니다。
그럼으로이런三大作用이相俟하야서 迅速하게疾病을根治하는것입니다。

六一〇ハップ試用直驗見効

△主 治 効 能
옴、무좀、옴부스럼、마른옴、腫氣、땀띠、其他皮膚病、痔疾、胃腸病、婦人病、神經痛、

新界의權威

發賣元 武藤舍合名會社藥品部

朝鮮唯一 [redacted] 認可電醫

●物理醫療士任徵教授

認可 朝鮮高等電醫講習院

於全鮮品評會 優等賞

馬山・村崎酒造場

ツヤミドリ

訃告

李河圭母親恩安李氏 不幸四月十四日午後二時三十分別世 訃告
永訣式
葬式
昭和十一年四月十五日
嗣子 李河圭 李敦圭